

【권두언】

새로운 전통을 창조하는 마음으로



교장 김 영 석

풍요로웠던 계절도 이제는 건조한 바람을 맞으며, 하얀 속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정에 가득했던 신선한 젊음과, 어둠을 사르던 열정은 하나의 추억이 되어 우리들 가슴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시간들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삶을 이루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한 계절의 끝자락에 서서, 새로운 이상을 이해 웅비하려는 문일인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글을 전합니다.

근면, 자율, 성실의 가치를 절고 목화향의 비상(飛翔)을 염원하며 개교하던 시절의 기억이 문득 떠오릅니다. 무척이나 추웠던 그 겨울날, 우리는 맑고 싱그러운 학생들의 눈빛을 보면서, 그리고 선생님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그들을 느끼면서 우리는 가슴 벅찬 의욕과 열정으로 뜨겁게 지냈습니다.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선생님과 학생들의 사제동행(師弟同行)하는 모습은 언제나 고맙고 대견한 기억으로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미숙한 점이 많았던 그 시절, 우리는 열성과 노력으로 신흥학교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하여 타학교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으며, 학업과 인성 교육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문일의 새로운 전통 창조의 가능성을 발견했고, 이를 위해 교정을 힘차게 뛰었으며, 어둠 속에서도 빛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신흥 학교의 부담을 느끼며 정신없이 달려온 지난 10년의 세월이 어느덧 지나고 졸업생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지역 사회의 역군이 되어 있음을 생각할 때, 가슴 뿌듯함을 느낍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 ‘인사 잘하는 학생.’, ‘항상 단정한 학생.’이라는 전통을 만들어낸 선배 졸업생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현재의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가치있는 새로운 전통 창조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도 상기하기 바랍니다.

10여년의 세월동안 일구어온 문일 동산의 힘찬 도약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선배들의 업적 위에 보다 의미있는 열매를 위한 부단한 몸짓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먼저 자신의 내적 충실을 기하고, 학업과 인성(人性)함양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됨의 마음으로 문일인 모두가 힘차게 나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전기(轉機)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흘러간 시간은 언제나 아쉽고 그리운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시간에만 집착하게 되면 미래를 포함한 현재의 삶이 무의미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문일의 새로운 전통의 창조를 위해 힘껏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문일인 모두의 성실하게 노력하는 마음자세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또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번 문원 9호가 나오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담당 선생님들과 차가운 편집실 모퉁이에서 원고 정리와 교정에 고생이 많았던 편집부 위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